

<나의 연기 워크샵> 거울 앞에서 살고 죽을 것

성동욱

<나의 연기 워크샵>은 클로즈업으로 시작한다. 영화 초반, 안선경은 관객에게 게임의 규칙을 먼저 알려준다. 현(이관현)과 경(서원경)이 분식집에서 만두를 먹고 있을 때, 경이 현에게 반쯤 장난이 섞인 고백을 한다. 이때 카메라는 둘을 함께 프레임에 넣기도 하지만 분주하게 양 인물의 얼굴을 꼭 채워 담는다. 뜬금없이 튀어나온 고백으로 인해 당황한 두 사람의 얼굴이 교차되며 스크린 속 상황은 팽팽히 긴장된다. 그때 갑자기 카메라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곳에는 지도교수인 미래(김소희)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영화 속에는 이런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된다. 그 때문에 관객들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얼굴들이 영화 속 현실의 것인지, 워크샵 과정 속의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렇게 영화 속 현실의 얼굴과 연기하는 얼굴, 두 차원의 구분이 모호해질 때 관객은 이 영화가 대상으로 삼은 ‘연기’라는 예술에 호기심을 갖게 된다.

카위는 <작가수첩>에서, 보들레르의 “거울 앞에서 살고 죽을 것”이란 말을 인용하며 “거울 앞에서 사는 것이야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일”이라 했다. 안선경은 연기라는 형식을 빌어서, 카메라를 빌어서 우리 모두의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면 이 영화 속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우리의 일상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영화에서 인물들의 현실과 연기를 구분해내기 어려운 이유는 초반부에 예기치 않게 등장했던 타자의 시선이, 항상 존재할지도 모르는 자각 때문이다. 모든 상황들에서 카메라가 고개를 돌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보는 다른 시선이 그저 생략된 것인지, 실제로 없는 것인지 관객은 확신하기 어렵다. 또한 <나의 연기 워크샵>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영화이기 때문에 언제나 카메라의 존재는 생략될 수 없다. 그 때문에 이들이 처한 상황은 죽을 때까지 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상황을 강력하게 지시한다.

<나의 연기 워크샵>이 스스로의 목적을 관객에게 완전히 전달하는 데 성공한 것 같지는 않다. 이 영화가 다양한 차원을 유려하게 오갈 때 그것이 영화적 순간처럼 다가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읽힌다. 안선경이 미리 보여준 규칙 덕분에 논리적으로 이해된다. 내 생각에 <나의 연기 워크샵>이 가진 형식은 관객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워크샵을 통해 규정되지 않는 것을 받

아들여야 하듯, 관객 또한 영화가 먼저 그렇게 와야 한다. 그러나 내게는 <나의 연기 워크샵>이 지나치게 양식적으로 다가왔다. 이 영화의 형식은 복잡다단하지만 그 총위 사이사이의 간격은 지나치게 좁다는 생각이다. 그 간격이 좁기에 이 영화가 몇 가지 총위를 단번에 넘나들 때에도 흥미를 자극할 뿐 영화적인 순간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영화를 보고 난 뒤에야 주인공들이 실제로 워크샵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란 걸 알게 됐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 전 영면한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의 <클로즈업>(1990)을 떠올렸다. <클로즈업>은 픽션과 다큐멘터리를 오가며 인간의 얼굴을 담아내고, 끝내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두 차원의 경계가 무의미해지는 순간을 만들어낸다. 키아로스타미가 만들어내는 순간은 관객에게 납득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처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찰나에 관객은 영화를, 영화 속 얼굴을 하나의 진실로 여긴다. <나의 연기 워크샵>이 <클로즈업>을 반영한 작품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이 영화 역시 그런 순간을 꿈꾸며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나의 연기 워크샵>의 클로즈업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워크샵의 당사자인 그들의 오리지널리티를 조금 더 드러낼 수 있었다면, 스스로 꿈꿨던 영화적 순간을 기어이 만들어 냈을지도 모른다.